재능과 달란트는 아첨과 비슷하다

(마25:14~30)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읽지 않은 부분의 내용도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 말씀 <재능과 달란트는 아첨과 비슷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합니다.

'재능과 달란트는 아첨과 비슷하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려운 비유를 참 우리는 참 쉽게도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서도 의미가 정해졌습니다.
세간에서 사용하는 달란트라는 말의 의미도 이 본문 비유에 근거를 두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면 재능이라는 건 뭡니까? 재능.
재능은 그냥 재주와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재주와 능력.
그런데 달란트가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그게 곧 달란트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억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달란트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축구를 잘한다, 그거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달란트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재능이 곧 달란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우린 그걸 곧바로 달란트라 그러는데,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을 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곧 달란트가 아니라, 아! 김 집사 달란트가 있어, 아! 박 장로님 아님 우리 목사님 이런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재능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달란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라!
그럼 재능은 어디 갔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재능은.
재능에 따라 주어진 것이 달란트라 그러는데, 달란트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면, 그것이 선천적인 자질이든 후천적으로 획득된 능력이든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해라!
달란트를 활용해라!
그러면 그런 달란트가 주어지게 된,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 주어지게 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그 재능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되는 본문의 재능은 뭡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들.
내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잘못된 이해지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이고 재능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뜻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본문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번역된 그 달란트와는 다른 거예요, 단어 자체가.
뒤나미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카타텐이디안뒤나민' 카타라는 것은 ~에 따라서, 텐이디안은 각자의 이런 뜻이에요, 이디안.
각자의 뒤나민 재능, 능력 뒤나미스라 그러잖아요?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뒤나민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란트란 말은 다른 겁니다, 달란트라는 건 화폐의 단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능과 달란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23절에 나오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읽은 21절에도 나오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많은 일을 맡기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한 상입니다.
상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도 결국은 남인데, 상이라고 받은 것이 결국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상이라면 이게 상입니까? 고역이지요.
그런데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상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주인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하' 웃으면 '하하하하' 주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고.
겉으로 보기엔 아첨과 똑같은 것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어떨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주인의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소원이나 주인의 마음이 느끼는 필요나 주인의 마음이 갖고 있는 욕구가 채워질 때, 소원이 채워지고 욕구가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질 때에 주인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인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고, 주인의 마음이 느끼는 그 필요가 나도 절실하게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 느껴야 되고, 주인이 욕구하는 거, 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욕구해야만, 주인이 즐거워 할 때 나도 즐거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첨하는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아첨이라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짓으로 가장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즐거워 할 때에 거짓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에 참여함은 아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첨과 똑같아요.
주인이 좋아하면 '아~! 정말 잘 됐습니다' 더 좋아하고, 이거 아첨하는 거 아닙니까?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그 환심을 삼으로써 자기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자기의 목적, 주인이 모르는 숨겨둔 자기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듯 가장하는 것이 아첨인데, 본문에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아첨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진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서,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말씀하실 때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다섯을 맡겼으면 넷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여섯 일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섯이에요, 그리고 두 달란트를 맡겼는데 꼭 두 달란트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계산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섯은 다섯이어야 되고 둘은 둘이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는 주인의 소원, 주인의 계획, 주인이 뜻하는 바가 달란트라는 겁니다.
주인이 뜻하는 바를 종이 내가 뜻하는 것으로 여기고 주인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으로 여겨서 현실로 이루어 냈을 때, 주인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종이 현실로 실현했을 때, 다섯 개의 계획이 다섯 개가 실현된 겁니다.
청사진대로 현실의 건물이 지어지듯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는 계획이 곧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 집사님은 달란트가 있어'라고 말하려면, 김 집사님의 노래 부르는 재능, 김 집사님의 봉사능력, 김 집사님의 돈 관리능력,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의 달란트에 맞게 회개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달란트가 있어?'라고 말하려면, '김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 달란트가 맡겨지는 그 재능은 뭡니까. 재능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상하게 들리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법무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다고 한번 쳐봅시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 지성 선수가 취직을 해서 그 법무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박 지성 선수의 유럽인들까지도 극찬하고 있는 그 축구의 능력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달란트가 박 지성선수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까?
달란트가 뭐라고요?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인의 계획입니다.
지금 재능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그 주인이 이루고 싶어 하는 계획을 종에게 알려 주는 거지요.
근데 그 재능이 뭐냐? 박 지성선수는 분명히 축구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박 지성선수를 고용한 주인이 프리미어 리그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오너가 아니라 법무회사를 갖고 있는 사장이라면, 그 법무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박 지성선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는 재능이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없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란트라도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만 주어진 이유는 주인이 볼 때에, 주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채택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과 거리를 둡니다, 주인을 비판합니다, 주인을 굉장히 악랄한 구두쇠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득을 챙기려는 수전노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과 마음이 일치하고 주인의 마음에 맞춰가는 겉으로는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재능이었다는 겁니다.
재능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첨의 능력인 거예요, 아부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아부를 잘하느냐?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속마음까지 진짜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 수미 씨가 대단하지요.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에게는 그 조 수미 씨의 재능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그 재능은.
조 수미 씨에게 전자부품을 조립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의 소원은 조 수미 씨가 그걸 잘~하기를 원합니다, 부품을 잘 조립하길 원해요.
근데, 그 사장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 수미 씨는.
손을 놀려 본적이 없어요, 입만 놀렸지.
손가락을 놀려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품을 세밀하게 조립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렇게 착각해요.

내게 어떤 소질이 있다 자질이 있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의사가 되었다, 아니면 무슨 기술을 터득했다 그러면 그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 우린 그걸 재능이라 생각하고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똑같은 강도로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똑같은 강도로 소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재능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십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투덜댑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일당 10만원인데 손님이 많이 와서 쉴 틈도 없고 죽겠다! 이건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10만원 받지만, 손님이 많이 옵니다, 자기가 주인 같이 얼굴에 빛이 돕니다.
막~ 서빙하고 뛰어다니는데 지칠 줄을 모릅니다, 손님이 막 미어져 터져 오는데…
이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학식이 있다 없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건 재능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재능이라 생각하면 안돼요.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건희 회장 아니면 LG회장, SK회장, 현대그룹의 회장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 재능 제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 겉으로 보기에 아첨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일치할 수 없다면 이들에게 아무 능력도 주어진 게 없는 겁니다, 능력제로의 상태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최고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당시 이집트,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재능이라고 여길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노릇 하느라고, 양 키우느라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때에 80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때 출애굽의 대역사! 인류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건을 맡기십니다.
이 출애굽의 계획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왜 모세에게 맡기는 겁니까, 지금 80이 된 이 상태에?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재능이 뭡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고,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추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재능이 아첨처럼 보이는 그 재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그만큼 큰 대역사,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역사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수행해 나갈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 이루려는 일을 해 나갈 때, 그러기 위해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말하는 재능도 없고, 이끌 재능도 없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서 나를 믿고 따르게 할 재능도 없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맞설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하는 고 재능! 그 재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재능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는 자, 주인과 거리를 두고, 주인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따로 갖고 있고, 기쁨이 다른 이유는 내 욕구와 내 소원이 주인이 원하는 소원과 욕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능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입장을 죽이는 겁니다.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의 이유를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소원과 욕구와 필요에 대한 느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여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해서 맞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열두 사도 중에 누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젊었을 땐 네 스스로 띠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의 띠를 띠고 그 사람이 그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게 무슨 뜻 입니까?
'네가 늙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자가 되는 능력이 있을 때에 너에게 달란트가 주어지고, 달란트가 현실에서 성취되면서 다섯 달란트가 다섯을 낳고 둘이 둘을 낳고 백이 백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남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아첨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의견 내 소원 내 뜻 내 의중은 죽여 버리고 하나님께 아첨하듯 아부하듯 맞춰가는 재능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아첨의 대가들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